



리그 전반기를 1위로 마무리한 삼성라이온즈.



리그 후반기 들어 1위를 탈환한 kt위즈.

연합뉴스

KBO 전력평준화... 2연속 ‘가을 야구’도 벅차

현 순위 굳어진다면 작년 대비 PS 출전 3개 팀 물갈이 ‘투타조화’ LG·삼성 안정적... 두산 이후 ‘왕조’ 사라져

2년 연속 한국시리즈 우승은커녕 2년 내리 가을 야구에 가는 게 어려워진 세상이다.

11일 현재 프로야구 중간 순위를 보면, 포스트시즌 출전팀의 윤곽이 서서히 굳어지는 분위기다.

가을 야구 막자 탐승권이 걸린 5위(KIA 타이거즈)와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6위(한화 이글스)와의 격차가 5경기로 벌어졌다.

한화는 KIA와의 남은 4번의 대

결에서 승차를 최대한 좁힐 수 있지만, 지금 더 밀렸다간 가을 잔치 초대장을 완전히 놓칠 수 있어 긴장 강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선두 kt wiz를 필두로 2위 삼성 라이온즈, 3위 LG 트윈스, 4위 두산 베어스, 5위 KIA의 강세가 막판까지 이어진다면 가을 야구 출전팀은 작년과 비교해 세 팀이나 바뀐다.

2024년 한국시리즈 우승을 다룬 5개 팀이 2년 만에 리턴 매치를 벌

이는 셈이다.

지난해엔 LG, 한화, SSG 랜더스, 삼성, NC 다이노스가 가을의 고전을 즐겼다. LG는 한화를 제압하고 2년 만에 정규리그와 한국시리즈를 잇달아 제패하는 통합 우승을 이뤘다.

잔치상을 못 받은 대신 절치부심 작년 가을부터 준비한 kt, 두산, KIA가 올해엔 가을 야구에 성큼 다가섰다.

LG가 올해에도 포스트시즌에 나 서면 구단 최장 연속 가을 야구 신 기록을 쓴다.

구단명을 한 번도 바꾸지 않은

원년 구단 삼성이 12년 연속으로 이 부문 최장 기록을 보유 중이다. KIA가 9년 연속으로 뒤를 잇는다.

최근인 2024년과 2025년 사례를 보면, LG와 삼성 두 팀만 가을 야구 고전 출전팀이었다. 전력 평준화 시대에 투타 전력이 가장 안정적이라는 방증이다.

포스트시즌 출전이 호락호락하지 않은 상황에서 ‘왕조’ 구축은 더 힘에 부친다.

두산이 2015~2016년 2년 연속 한국시리즈를 제패한 이래 왕조의 상징인 한국시리즈 연속 우승팀은 사라졌다.

연합뉴스

“팬 자존심 짓밟아” 땀땀 친선전 후폭풍

제주SK FC 서포터스, 운영과정 팬 홀대 강력비판
구단 측 15일 간담회... “입장 설명하고 재발 방지”

지난 4일 열린 바이에른 땀땀과 제주SK FC 친선전에서 제주 팬과 서포터들을 홀대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제주SK 서포터스인 ‘서던모스트’는 경기 직후 SNS에 입장문을 올리고 친선 경기 운영과정에서 제주 팬과 서포터들을 무시한 사례를 열거하고 제주SK 조자룡 대표이사과 구자철 테크니컬 디렉터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 개최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또한 올시즌 잔여경기 응원 보이콧과 SK에너지·SK주식회사 본사 건물 트럭시위, 이외 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서던모스트 주장의 핵심은 땀땀과의 예매와 경기 운영과정에서 제주 팬과 서포터에 대한 철저한 무시다. 타 구단의 사례와 달리 제주 팬들의 선예매 요구를 거절하고 N석 스탠딩석(서포터석)을 풀어버렸다는 점, N9 구역 일부만 서포터

에게 배정한 점, 경기 당일 최소한의 신분증 검사조차 없는 진행과 서던모스트 배너 철거 등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다.

이에 대해 구단은 오는 15일 열리는 안양전 당일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서던모스트의 지적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던모스트는 간담회에서 팬들의 입장을 추가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14일까지 의견을 받기로 했다.

제주SK 구단 관계자는 “2만명이 넘는 관객이 몰리면서 주차부터 편의시설, 입장 관리, 예매 등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간담회에서는 구단측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앞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위영석기자 yswi1968@ihalla.com

U-17 女배구, 세계선수권 5연승으로 16강

알제리 3-0 완파... D조 1위
오늘 필리핀과 16강전 격돌

이승영 감독이 이끄는 17세 이하(U-17) 여자배구대표팀이 2026 국제배구연맹(FIVB) U-17 여자 세계선수권대회 조별리그에서 5전 전승을 거두고 조 1위로 16강에 진출했다.

중·고교 선수들로 구성된 U-17 대표팀은 12일(한국시간) 칠레 로스안데스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D조 5차전에서 알제리를 세트 점수 3-0(25-10, 25-17, 25-18)으로 완파했다. 한국은 푸에르토리코, 대만, 이탈리아, 도미니카공화국에 이어 알제리까지 차례로 꺾고 5승 무패 승점 15점으로 조 1위를 차지했다.

대표팀은 13일 오전 9시 B조 4위인 필리핀과 16강전을 치른다.

경기는 일방적이었다. 한국은 1세트 시작 후 알제리의 불안한 수비를 틈타 8연속 득점에 성공하며 크게 앞서갔다.



17세 이하 여자배구대표팀. 국제배구연맹 제공

1세트를 25-10으로 잡은 한국은 2세트에서 주로 손서연(선명여고)에게 휴식을 주는 등 주전 선수들의 체력 안배에 나서기도 했다.

대표팀은 2세트에서 8-9로 뒤지다가 5연속 득점하며 경기를 뒤집었고, 이후 리드를 놓치지 않았다.

3세트에서는 15-15에서 장수인(경남여고)의 블로킹과 상대 공격 범실, 문티아라(경남여고)의 오픈 공격 등으로 4연속 득점하면서 승기를 잡았다.

손서연은 1세트에서만 6점을 올렸다. 손서연은 이번 대회 5경기에서 총 97점을 올려 전체 득점 1위를 달리고 있다.

연합뉴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야구 대표팀 최종 명단

아시안게임 전체 일정 2026년 9월 19일 ~ 10월 4일
야구 경기 일정 9월 21일 ~ 27일(7일간)

외야수(4명)

문현빈(한화 이글스), 김지찬(삼성 라이온즈), 윤동혁(롯데 자이언츠), 박재현(KIA 타이거즈)

내야수(7명)

문보경*(LG 트윈스), 노시환*(한화), 정준재(SSG 랜더스), 이재현(삼성), 김주원(NC 다이노스), 김도영(KIA), 박준순(두산 베어스)

투수(11명)

김영우(LG), 조병현(SSG), 배찬승(삼성), 박영현·소형준·오원석(kt wiz), 최준승·김진욱(롯데), 성영택(KIA), 광빈*·최민석(두산)

포수(2명)

조형우(SSG), 김건희(키움 히어로즈)

*와일드카드(만 29세 이하)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야구 대표팀 최종 명단.

연합뉴스

AG 야구대표팀 9월 14일 소집 후 일본으로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5회 연속 우승에 도전하는 한국 야구대표팀이 9월 14일 출항한다.

대표팀의 한 관계자는 “9월 13일 까지 소속팀에서 KBO리그 경기를 치르고 9월 14일 모여 이틀간 손발을 맞춘 뒤 9월 17일 나고야로 이동한다”고 향후 일정을 12일 전했다.

아시안게임 야구는 9월 21~27일 일본 아이치현 오카자키 중앙종합공원 야구장과 도요하시 시민구장에서 나뉘어 열린다.

우리나라는 9월 21일 오후 6시30분 대만과 경기를 시작으로 홍콩, 태국과 B조 조별리그 경기를 치른다.

최근 대만으로 넘어가 전력 분석을 마치고 돌아온 류지현 대표팀 감독은 “대만프로야구리그 소속으로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야수 5명을 지켜봤다”며 “프리미어12, 월드베이스볼클래식과 달리 대만 주전 포수가 바뀔 것 같아 새 포수의 기량을 집중적으로 연구했다”고 전했다.

아시안게임에서 한국 야구의 강력한 라이벌로 꼽히는 대만은 아직 24인 로스터를 확정하지 않았다.

미국프로야구 마이너리그와 일본프로야구 2군에서 뛰는 투수들이 합류한다면 마운드의 높이가 확실히 올라갈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류 감독은 오는 26일부터 9월 6일까지 일본 도쿄돔에서 열리는 일본 도시 대항 야구대회를 참관하며 사회인리그 소속 일본 대표 선수들의 전력 분석을 마치고 돌아올 예정이다.

연합뉴스

KBS1	KBS2	MBC	JIBS/SBS	EBS1
6:05 KBS 뉴스광장 7:35 KBS 뉴스광장 제주 7:50 안간국청 8:25 아침마당 9:30 KBS 뉴스 930 9:45 KBS 뉴스 제주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1:10 사랑의 가족(재)	6:05 TV 유치원 6:35 걸어서 세계속으로 트레블홀릭(재) 7:30 굿모닝 대한민국 8:50 생생정보 스페셜 9:30 일일드라마 목망의 빛(재) 10:10 KBS 아침 뉴스타임 10:30 안간국청 스페셜 11:10 셸링빙사의 비밀(재)	6:00 MBC 뉴스투데이 1부 6:25 MBC 뉴스투데이 2부 7:20 MBC 뉴스투데이 제주 7:50 TV 전국시대 8:50 가족관계증명서(재) 9:30 930 MBC 뉴스 9:45 기분 좋은 날 10:45 찾아가는 푸라기교실 11:15 건강의 재구성 섹북(재)	6:00 모닝와이드 1부 6:25 모닝와이드 2부 7:15 JIBS 아침 뉴스 7:40 모닝와이드 3부 8:40 9방블 8:50 좋은아침 9:55 SBS 10 뉴스 10:30 푸라기 탐구생활 11:00 말하는 몸	8:50 꼬마와법사 주니토니 9:20 처음 배우는 시 11:05 세계테마기행 13:25 EBS 평생학교 15:50 마자와 꿈 16:40 최고단 호기심 딱지 17:10 피파 피크 18:50 시대목격 21:55 왔다 내 손주
12:00 KBS 뉴스 12 13:00 KBS 네트워크 특선 헤드림 컴퍼니 14:00 KBS 뉴스 14:10 방과 후 초능력 14:4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15:10 베티더뮤직 시즌 2(재) 16:00 시사간전 17:00 KBS 뉴스5 17:30 탐나는 제주	12:25 동네 한 바퀴(재) 13:30 일일드라마 목망의 빛 스페셜 15:00 KBS 뉴스타임 15:15 월드 24 15:45 하이라인 인사이드(재) 16:00 TV 유치원(재) 16:30 누가 누가 잘하나 17:30 불한대는 따라잡기	12:00 12 MBC 뉴스 12:25 유부녀 길러(재) 13:55 2시 뉴스 외전 15:55 기분 좋은 날(재) 16:55 5시 뉴스와 경제 17:10 엄마를 부탁해(재)	12:00 SBS 12 뉴스 12:45 배메린 시즌4 13:00 건강칼럼(재) 14:00 뉴스브리핑 15:30 와이즈 정보소 알고보면 16:00 테스타페셜(재) 17:00 JIBS 저녁 뉴스 17:10 여행에 진심	KCTV 9:00 KCTV 9시 뉴스 9:30 인터뷰 제주를 말한다 10:00 로컬여행 오정해보고 11:00 KCTV 11시 뉴스 11:30 캠핑가자 12:30 지역이 묻고 국회가 답한다 14:00 웰리지 퀴즈챌러 15:20 5회 KCTV에 전도불량대회 17:30 살아있네 살아있어 19:30 KCTV시청자 세상 20:00 리얼카운트다운 나는 능부다 제주CBS FM 93.3MHz 90.9MHz 7:00 박성태의 뉴스쇼 9:00 그대 창가에 일렉스입니다 12:00 CBS 뉴스 14:05 이불규의 여행기 17:05 시사매거진 제주 17:30 복지현의 뉴스톡 530 18:00 박재홍의 한판승부 20:00 CBS 뉴스 TBN제주교통 FM 105.5MHz 105.9MHz 7:00 출발! 제주대행진 9:00 스토리오 1055 14:05 TBN 차차차 16:00 TBN 제주매거진 18:05 달리는 라디오
18:00 6시 내고향 19:00 KBS뉴스 7 제주 19:40 한국인의 밤상 20:30 일일연속극 기쁜 우리 좋은 날 21:00 KBS 뉴스 9 21:35 KBS 뉴스 9 제주 22:00 광복절 기획 다큐 인사이드 22:50 KBS 뉴스타임W 23:30 이슈 픽 썸과 함께 스페셜	18:00 경제콘서트 18:35 2TV 생생정보 19:50 일일드라마 목망의 빛 20:30 신상출시 편스토랑 21:55 웰컴 투 수군스를 23:05 토크 미니시리즈 결혼의 완성(재)	18:05 제주엔 19:05 생방송 연극복합 720+ 19:10 가족관계증명서 19:40 MBC 뉴스데스크 21:00 시사기획 이슈 있다 22:00 구해줘! 홈즈 23:50 MBC 뉴스 25	18:00 생방송 투데이 19:00 뉴스타임스 19:50 SBS 8 뉴스 20:30 JIBS 8 뉴스 21:00 지식 방송 프로젝트 합숙 맞선 2 22:20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23:50 나이트라인	
#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KBS 064)740-7331 / ☎ MBC 064)740-2432 / ☎ JIBS 064)740-7800 / ☎ KCTV 064)741-7723 / ☎ 제주CBS 064)748-7400 / ☎ TBN제주교통방송 064)717-8114				



오늘의 운세 13일



36년 부락이 와도 내 거언이 약해 부락을 못 들어주어 마음이 아쉽다. 48년 마음고생이 심하니 번거로운 일을 만들거나 두가지 일을 하면 몸살만 난다. 60년 수습할 일이 생기거나 근심수가 오니 행동 조심해야. 72년 변화를 추구하거나 자녀문제로 학교를 가는 경우도 있다. 84년 두가지 일로 고민이 많다.



37년 문서운이 있고 깜짝 놀랄 일이 생긴다. 49년 자녀로 인한 경사도 있지만 자녀로 인해 걱정하는 경우도 생긴다. 61년 하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 추진해도 무방하다. 73년 안전사고 조심, 무단차 철저, 외출시 현금조심, 불조심. 85년 귀가가 늦으면 불화가 찾아오니 일찍 집으로 향할 것.



38년 외출시 낙상으로 인한 관절과 타박상 조심. 50년 혼자서는 해결이 안되니 가까이 있는 사람과 논의하라. 62년 몸이 분주하고 바빠다. 자식이나 남편관리 철저. 74년 이성이나 애정이 오가니 행동에 신중함을 가질 것. 86년 주위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 화속에 나를 부른다.



39년 내 주변에 안타까움이 많은 소식을 듣게 된다. 51년 계획을 세우거나 하는 일은 희망이 있다. 63년 이익이 있거나 즐거움이 있다. 외출시 자는 집에 둘 것. 75년 문서, 매매나 이사는 원만하나 가정에서 불화가 생긴다. 87년 새로운 이성이나 교제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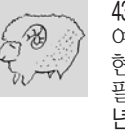
40년 뜻하지 않은 소식을 접하거나 놀랄 일이 생긴다. 52년 같은 일을 반복하여 하는 업종은 좋은 대화법이 필요하다. 64년 남의 사생활에 간섭하다 망신수가 있으니 간섭하고 싶어도 꼭 참고 자녀에 신경써라. 76년 활동이 강하고 모임이 생긴다. 부부애정 주의. 88년 생각에 머물지 말고 실천이 최우선이다.



41년 집안에 할 일이 많고 손발 곳도 많은 날. 53년 진행 업무에 하자가 발생되거나 지체되니 각별히 주의. 65년 부부간 불화가 찾아오고 이성이 반기니 가정에서 논쟁은 불리. 77년 직장이나 업종의 변화가 온다. 쉽게 결정하지 마라. 89년 너무 신중해 기회를 잃기도 하니 자신감과 추진력이 필요하다.



42년 몸과 마음이 허전하다. 친구나 취미동호회가 필요. 54년 시비나 구설이 오니 다투지 않는게 상책. 66년 직장에 관한 소식을 접하거나 이성이 다가온다. 78년 자기분위적 독단은 일이 어렵게 한다. 대화와 화합으로 추진하라. 90년 예전과 같지가 않다. 도움 필요시 주변에 도움을 청하면 해소.



43년 업무과중에 심하면 과로사의 위험도 우려. 휴식과 여유가 필요한 때. 55년 하는 일을 변동하면 불리하니 현재 상태를 유지해 가는게 바람직. 67년 이동 변화가 필요하며 집안에 안부전환. 근심수가 오기도 한다. 79년 자신을 가지고 말거진 일을 소회하라. 91년 건강증진 오거나 한 말을 못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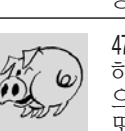
44년 이동 변동건이 오거나 문서와 관계된 일이 발생한다. 56년 가게 오픈이나 모임에 가게 되니 술은 가능한 자제. 68년 생각이 많거나 안절부절 할 수 있으니 침착한 생각이 결단을 빠르게 한다. 80년 말거진 일에 충실하고 타인의 일에 간섭은 금물. 92년 친구나 동료가 필요하고 정보보다 밖으로 나가고 싶은 날.



45년 농·수산업 분주. 명예가 있거나 재물 이득. 57년 일에 추진이 빨라지고 능률이 오른다. 최선을 다해 기회를 활용하라. 69년 동업 제의시 정중함 거절도 필요. 자격준비하여 독립사업 걸. 81년 이성으로 갈등한다. 독보다 실이 많으니 약속은 보류. 93년 협조할 일이 생기거나 주위에 도움을 주면 기쁨 가득.



46년 부부간에 정이 필요하고 도움을 주게 되니 냉정하게 대처지 마라. 58년 애정분제로 외부에서 불화가 생기니 구설을 만들지 말 것. 70년 오늘날도 내일을 준비하고 설계하는 것이 유리하다. 82년 청전을 받거나 고가에 반영되니 자신감을 가질 것. 94년 외출이나 운동 등 야외로 나갈 일이 생긴다.



47년 취할 것은 취하고 피할 것은 피하는 지혜가 필요하니 간성하지 마라. 59년 시간이 나를 기다려 주지 않으니 주변에서 해법을 찾아봐라. 71년 직장인에게 실직 또는 재취업에 대한 일이 발생하니 신경을 써라. 83년 이성이 생기고 호기심이 강하게 작용한다. 95년 전문성을 가진 업은 자신을 갖고 뛰어나라.